

## 2019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워크숍 보고서

작성자 : 김보영(KISA)

세션명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 정책 공개의견수렴			
일시	2019.7.5.(금) 11:00~12:30	장소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참석자	사회	윤복남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발제	이정민 팀장(KISA)
	패널	강경란 교수(아주대)		
		이영음 교수(한국방송대)		

제안내용	<p>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5차 인터넷주소자원 기본계획('18년~'20년)'에 따라 개인, 기업 등이 보유한 숫자브랜드(상표, 상호, 전화번호 등)를 도메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하고자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여 정책(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함. 추가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2단계 숫자도메인 도입을 위한 정책(안)"을 마련하였으며,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을 통해 정책 도입 취지 및 정책(안)을 소개하고, 공개의견 수렴을 하고자 함.</p>
요약내용	<p>○ 2단계 숫자도메인이란 2단계 도메인이 숫자(및 하이픈(-)로 구성된 도메인 이름을 말함(예 : 1588.kr, 118.한국)</p> <p>- 해외는 '01년부터 허용되었으나, 국내에서는 '06년 2단계 .kr 도메인 도입당시 ENUM 서비스(하나의 식별번호로 팩스, 전화, 이메일 가능)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하였음. 단, 3단계 숫자도메인(예 : 118.or.kr)은 초기부터 숫자도메인 등록이 허용됨</p> <p>○ KISA는 숫자도메인 도입을 위한 산·학·연 연구반을 구성·운영('19.2월~4월)하여 숫자도메인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의 제반 사항을 검토함</p> <p>* 연구반 구성(총9명): 정부1명, 공공1명, 학계2명, 법조계1명, 산업계2명, 상표전문가2명</p> <p>- 또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대상 의견 수렴을 진행함('19.5월)</p> <p>○ 주요 검토 내용</p> <p>① 공공성을 갖는 특수번호의 등록 제한 : 일부 필요</p> <p>-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서 정한 119, 120 등 10Y, 12Y, 13YY계열 및 107, 182, 188 번호는 국민들의 혼란 방지와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해당 기관에 한하여 등록 허용 필요</p> <p>-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로 장기간 사용해 온 100 등 10Y계열 번호는 등록 제한 하지 않되, 국민혼란 방지를 위해 2단계 숫자도메인 등록초기 약 2개월 간 해당 기관에 게 한시적으로 우선등록 부여 필요</p> <p>② 욕설 등 비속어 숫자도메인 등록 제한 : 불필요</p> <p>- 비속어 제한 기준의 모호성 문제, 3단계 .kr도메인 등록 시 숫자 비속어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아 사례 등을 고려 등록 제한 불필요</p> <p>③ 휴대전화번호 등의 등록 제한 : 불필요</p> <p>- 특허청에서도 전화번호 자체의 상표 등록을 허용하지 않으며, 휴대전화번호 및 전</p>

논의 세부 내용	<p>화번호는 영구적 독점이 불가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p> <p>-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번호만 등록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개인정보 침해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방법으로 법적 조치 가능</p> <p>- 또한, 3단계 .kr 도메인 등록 시 휴대전화번호 등록제한이 없는 점도 고려 필요</p> <p>④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의 등록 제한 : 필요</p> <p>-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등록 제한 정책 추진 필요</p> <p>- 또한, 위반 시 말소 등 사후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신설 필요</p> <p>⑤ 우선등록 정책 적용 범위 : 상표권자에게 우선등록 기회 부여</p> <p>- (상표권 범위) 순수 숫자만으로 등록된 상표구너만 인정할 필요</p> <p>- (우선등록자 선정방식) 우선등록 기간 복수의 상표권자가 도메인 신청 시 우선권자는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추첨방식으로 결정 필요</p> <p>- (기존 3단계 도메인 등록자) 현재 3단계 숫자도메인(119.co.kr) 등록자에 대해서는 우선등록 기회 미부여</p> <p>○ KrIGF 참석자 대상 의견 수렴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숫자도메인 등록 개시 예정</p>
	<p>○ 우선등록기간 중 미등록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지?</p> <p>- 우선등록과 분쟁조정은 별개의 사안, 도메인이름의 미등록만으로 상표권자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단정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음</p> <p>○ 타인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사용할 시, 소송에 의한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신속한 말소 절차가 있는지?</p> <p>- '본인'의 전화번호만 등록하도록 할 것임. 문제 발생 시 목적이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시간소요 불가피. 이유 불문한 일률·신속한 정지조치는 면밀한 검토와 의논이 필요한 법 개정사안임</p> <p>○ 개보법상 주민번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수집 과정의 주민번호임,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개보법에 적용되지 않는데, 인터넷주소정책에서 금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 고민 필요</p> <p>- '타인'의 주민번호 사용만 금지. 말소 경고 확인 후에만 등록되도록 절차 만들 것. 인주법 내에 이의 제기 시 말소 정책 마련할 것</p>